

##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이신영<sup>1</sup>, 유철선<sup>2\*</sup>

<sup>1</sup>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sup>2</sup>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 A Comparison study on happiness of preschooler (3-5yrs)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6-7yrs) mothers

Shin-young Lee<sup>1</sup>, Chill-sun Ryu<sup>2\*</sup>

<sup>1</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han University

<sup>2</sup>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요약** 본 연구는 만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만 6~7세 초등 1, 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를 통하여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특성과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두 집단 어머니의 행복감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은 유아 어머니 168명과 초등 저학년 어머니 170명, 총 338명이었으며 연구도구는 Ryff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전체 행복감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개의 하위변인 즉,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변인 중 자율성과 개인성장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초등 저학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자아수용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유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소득,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자녀교육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과 유·초연계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어머니들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유·초등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국가적 차원에서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부모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egree of happiness between mothers of preschoolers (3-5yrs) and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6-7y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68 mothers of preschoolers and 170 mothe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y were randomly chosen. We measured and analyzed 338 mothers' happiness using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although overall happiness level was similar, the two groups of mothers' happines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6 factors of mothers' happiness. Preschooler mothers had higher levels of happiness in autonomy and personal growth, while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had higher levels of happiness in environment mastery, positive relationships, purpose of life, and self-acceptance. Also, the background of mothers, such as age, educational status, family income, and religion caus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ppiness level of both groups.

**Keywords** : happiness, preschooler mothers,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comparison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 어머니

가 행복감을 어디에서 찾는가는 어머니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문화, 가정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감은 자녀양육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데 행복감을 높게 지각한

\*Corresponding Author : Chill Sun Ryu(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Tel: +82-42-580-6331 email: csryu@dst.ac.kr

Received March 8, 2018

Revised (1st April 17, 2018, 2nd April 24, 2018)

Accepted May 4, 2018

Published May 31, 2018

어머니일수록 자녀 양육에서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와의 다각적인 상호작용과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2]. 따라서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3].

어머니들은 출산 후 전인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자녀로 인해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처음 경험하는 어머니 역할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4]. 자녀가 초등학교 전이기에 접어들면,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학부모라는 새 역할로 인해 설렘과 기대감도 경험하지만 초등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염려와 불안감도 경험한다[5]. 이는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추후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기대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업성취와 학습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6]. 또한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 자신을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학부모 역할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6-7]. Cole의 가족생활주기별 행복지수[8]를 살펴보다도 어머니의 행복감은 가족구성원으로 자녀가 생긴 후, 자녀가 유아기를 지나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어머니들이 출산 후 처음 경험하는 자녀양육과 학령기의 학부모 역할 감당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유아기 어머니들은 새로운 생활환경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잘 적응하기 위해 자신과 자녀의 욕구 간에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삶을 위하여 자기개발이나 여가 활동의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9]. 아울러 대인관계를 통한 정신적 조원과 사회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로 하게 된다[10]. 초등학교로의 전이 및 적응기에 있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부모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의 해소를 위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정신적 조원과 사회적인 지원 등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6][11].

이와 같이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 어머니들과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행복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행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

어머니들의 행복감 특성 및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기에서 학령기에 이르는 어머니의 행복의 조건 또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연령, 소득, 학력 등 외적·상황적 변인들에 따라서 행복감이 차이가 난다는 연구[10][12-14], 둘째, 성격, 자아존중감, 자율성, 성취감 등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들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10][15-16],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자녀관계, 대인관계 등 관계적인 변인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0][17] 등으로 대부분 유아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를 각각 분리하여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는 연구들이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감을 살펴본 연구 [3][10][14]도 소수 있지만 초등 4-6학년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연구가 있을 뿐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유아 어머니와 초등 1~2학년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두 집단 어머니의 행복감 특성을 비교하고, 나아가 어머니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외적·상황적 변인 즉, 기초적이며 객관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연령, 학력, 수입, 종교에 따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심리내적 변인과 어머니를 둘러싼 대인 관계적 변인에 따른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의 비교분석은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3~5세 유아 어머니와 초등 1, 2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이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에 따라서도 비교, 분석해봄으로써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특성과 차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차이가 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라 유아의 어머

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차이가 나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D시, G시, S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두 곳에 재원 중인 만 3, 4, 5세 유아의 어머니 190명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 중인 만 6~7세 아동의 어머니 190명을 연구대상으로 임의표집 하였다. 사전에 전화로 허락을 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190부 총 380부의 설문지를 우편과 직접 방문을 통해 배부했다. 이 중 유아 어머니 172부(90.5%)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 175부(92.1%)를 회수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유아 어머니 4부, 초등 저학년 어머니 5부를 제외한 유아 어머니 168부(88.4%), 초등 어머니 170부(89.5%) 총 338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가정 월수입 분류는 한국통계청의 우리나라 가구별 중위소득 기준에 기초하였다.

### 2.2 연구도구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Preschooler mothers	Elementary mothers	Total	
	N (%)	N (%)	N (%)	
Age	Under 35	31(54.4)	26(45.6)	57(100)
	36-40	93(57.1)	70(42.9)	163(100)
	Over 41	44(37.3)	74(62.7)	118(100)
Educational status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or high school	28(32.6)	58(67.4)	86(100)
	Graduation from university	114(54.0)	97(46.0)	211(100)
	Graduation from grad school	26(63.4)	15(36.6)	41(100)
Monthly income	Under 3.5 million won	40(33.8)	90(66.2)	136(100)
	3.5-5.3 million won	68(60.2)	45(39.8)	113(100)
	Over 5.3million won	54(60.7)	35(39.3)	89(100)
Religion	Christianity	65(59.1)	45(40.9)	110(100)
	Catholic	17(43.6)	22(56.4)	39(100)
	Buddhism	12(44.4)	15(55.6)	27(100)
	Have no religion	74(43.7)	88(54.3)	162(100)
Total	168(49.7)	170(50.3)	338(100)	

본 연구에서는 유아 및 초등 어머니 행복감의 주관적 특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가지 심리적·관계적 차원으로 구성된 도구, 즉 Ryff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Abbott와 그의 동료들[18]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행복감을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개의 심리적 차원을 측정하는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척도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신뢰계수(Cronbach  $\alpha$ )는 .89이다.

Table 2. Reliability of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Happiness sub-factor	Question	Number	Cronbach $\alpha$
Autonomy	1, 12, 18*, 21, 29*, 32, 41*	7	.87
Environment mastery	2*, 11, 13*, 19, 30, 34*, 40	7	.91
Personal growth	3*, 10*, 16, 22*, 27, 31*, 37*	7	.90
Positive relationships	4, 9*, 15, 20*, 28*, 36, 42	7	.92
Purpose of life	5*, 8*, 14*, 23*, 25, 33*, 38	7	.89
Aelf-acceptance	6*, 7, 17*, 24*, 26, 35, 39	7	.88
Total		42	.89

\* Reverse marking

자료수집을 위하여 어머니의 배경변인과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포함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측정도구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 각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장이해도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설문지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7일까지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배경변인별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 3.1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유치원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떠하며, 두 어머니 집단 간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Autonomy	3.57(.43)	3.24(.47)	6.65***
Environment mastery	3.35(.61)	3.54(.52)	-3.13**
Personal growth	3.56(.51)	3.28(.56)	4.84***
Positive relationships	3.60(.65)	3.74(.54)	-2.15*
Purpose of life	3.24(.40)	3.50(.50)	-5.30**
Aelf-acceptance	3.46(.59)	3.62(.58)	-2.37*
Total	3.47(.41)	3.49(.39)	-5.36

\*  $p < .05$ , \*\*  $p < .01$ , \*\*\*  $p < .001$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어머니의 행복감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유아 어머니 M=3.47, 초등 저학년 어머니 M=3.49) 중요도의 순위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유아 어머니는 긍정적 대인관계 - 자율성 - 개인성장 - 자아수용 - 환경통제력 - 삶의 목적 순이었으며,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긍정적 대인관계 - 자아수용 - 환경통제력 - 삶의 목적 - 개인성장 - 자율성 순으로 두 집단의 어머니 모두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순서에서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또한 6개의 하위변인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할 때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 $t=6.65, p < .001$ )과 개인성장( $t=4.84, p < .001$ ) 변인에서 초등 저학년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환경통제력( $t = -3.13, p < .01$ ), 긍정적 대인관계( $t = -2.15, p < .05$ ), 삶의 목적( $t = -5.30, p < .001$ ), 자아수용( $t = -2.37,$

$p < .05$ )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2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변인별 행복감 비교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라 행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 3.2.1 연령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35세 이하의 연령에서는 자율성( $t = 3.39, p < .01$ )과 개인성장( $t = 2.03, p < .05$ )의 두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유아 어머니가 초등 저학년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5-40세에서는 5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 $t = 5.58, p < .001$ )과 개인성장( $t = 2.43, p < .05$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 $t = -3.96, p < .001$ ), 삶의 목적

**Table 4.**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ages

Age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Under 35	Autonomy	3.54(.43)	3.15(.41)	3.39**
	Environment mastery	3.46(.76)	3.42(.63)	.17
	Personal growth	3.57(.48)	3.30(.50)	2.03*
	Positive relationships	3.73(.68)	3.75(.62)	-1.23
	Purpose of life	3.29(.51)	3.35(.51)	-4.35
	Aelf-acceptance	3.50(.67)	3.57(.56)	-4.21
	Total	3.51(.41)	3.42(.40)	.82
35-40	Autonomy	3.59(.45)	3.18(.46)	5.58***
	Environment mastery	3.29(.57)	3.62(.50)	-3.96***
	Personal growth	3.55(.50)	3.36(.50)	2.43*
	Positive relationships	3.59(.64)	3.77(.52)	-1.93
	Purpose of life	3.23(.38)	3.59(.46)	-5.39***
	Aelf-acceptance	3.43(.57)	3.75(.56)	-3.61**
Total	3.45(.42)	3.55(.37)	-1.58	
Over 40	Autonomy	3.56(.39)	3.33(.48)	2.68**
	Environment mastery	3.40(.56)	3.50(.47)	-9.81
	Personal growth	3.24(.36)	3.48(.51)	-2.70**
	Positive relationships	3.58(.52)	3.21(.62)	3.36**
	Purpose of life	3.24(.36)	3.48(.51)	-2.70**
	Aelf-acceptance	3.51(.60)	3.50(.60)	.07
Total	3.47(.39)	3.45(.39)	.23	

\*  $p < .05$ , \*\*  $p < .01$ , \*\*\*  $p < .001$

( $t = -5.39, p < .001$ ), 자아수용( $t = -3.61, p < .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또한 40세 이상에서는 3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 $t = 2.68, p < .01$ )과 개인성장( $t = 3.36, p < .01$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삶의 목적( $t = -2.70, p < .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 3.2.2 학력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학력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 Table 5와 같다. 전체 행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6개 하위변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전문대졸 이하에서는 자율성( $t = 3.12, p < .01$ ), 개인성장( $t = 2.63, p < .01$ ), 긍정적 대인관계( $t = -2.24, p < .05$ )의 세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과 개인성장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긍정적 대인관계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졸에서는 6개 하위변인 모두에서 차이가 났으며 자율성( $t = 5.00, p < .001$ )과 개인성장( $t = 2.63, p < .01$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 $t = -3.11, p < .001$ ), 긍정적 대인관계( $t = -2.30, p < .05$ ), 삶의 목적( $t = -5.96, p < .001$ ), 자아수용( $t = -3.00, p < .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3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율성( $t = 2.22, p < .05$ )과 개인성장( $t = 2.44, p < .01$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삶의 목적( $t = -2.75, p < .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은 대학교 졸에서 가장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하, 대학원졸 이상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 3.2.3 수입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수입별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보면(Table 6), 전체 행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자아수용을 제외한 하위변인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350만원 이하의 수입에서는 자율성( $t = 3.13, p < .01$ ), 삶의 목적( $t = -3.18, p < .01$ )의 변인에서 두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삶의 목적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350-53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5개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자율성( $t = 3.46, p < .01$ )과 개인성장( $t = 2.90, p < .01$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 $t = -2.86, p < .01$ ), 긍정적 대인관계( $t = -2.30, p < .05$ ), 삶의 목적( $t = -3.16, p < .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높게 나타났다. 530만원 이상의 수입에서는 4개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자율성( $t = 4.22, p < .001$ )과 개인성장( $t = 3.82, p < .001$ )의 변인에서는 유아 어머니가, 환경통제력( $t = -2.11, p < .05$ )과 삶의 목적( $t = -4.07, p < .001$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았다. 이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은 350만원-530만원의 수입에서 가장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 53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5.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educational status

Educational status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M(SD)	Elementary mothers M(SD)	t
Graduation from Junior college or high school	Autonomy	3.52(.36)	3.23(.41)	3.12**
	Environment mastery	3.32(.51)	3.41(.47)	-.82
	Personal growth	3.43(.45)	3.15(.49)	2.53*
	Positive relationships	3.40(.49)	3.67(.55)	-2.24*
	Purpose of life	3.39(.44)	3.40(.53)	.14
	Self-acceptance	3.50(.67)	3.57(.56)	-4.21
	Total	3.37(.29)	3.36(.37)	.13
Graduation from university	Autonomy	3.55(.43)	3.23(.49)	5.00***
	Environment mastery	3.32(.64)	3.58(.54)	-3.11***
	Personal growth	3.55(.49)	3.35(.59)	2.63**
	Positive relationships	3.58(.66)	3.77(.54)	-2.30*
	Purpose of life	3.23(.42)	3.59(.45)	-5.96***
	Self-acceptance	3.44(.61)	3.69(.59)	-3.00**
	Total	3.45(.41)	3.54(.38)	-1.64
Graduation from grad school	Autonomy	3.72(.49)	3.35(.54)	2.22*
	Environment mastery	3.49(.58)	3.80(.43)	-1.77
	Personal growth	3.80(.57)	3.36(.51)	2.44**
	Positive relationships	3.92(.70)	3.82(.48)	-.51
	Purpose of life	3.36(.35)	3.70(.41)	-2.75**
	Self-acceptance	3.64(.66)	3.93(.49)	-1.50
	Total	3.66(.47)	3.66(.34)	-.03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6.**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income

Monthly income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i>M(SD)</i>	Elementary mothers <i>M(SD)</i>	t
Under 3.5 million won	Autonomy	3.50(.48)	3.24(.44)	3.13**
	Environment mastery	3.33(.61)	3.45(.50)	-1.21
	Personal growth	3.51(.53)	3.33(.54)	1.82
	Positive relationships	3.57(.73)	3.73(.52)	-1.39
	Purpose of life	3.19(.39)	3.43(.45)	-3.18**
	Aelf-acceptance	3.40(.71)	3.59(.52)	-1.81
	Total	3.42(.47)	3.46(.36)	-.63
3.5-5.3 million won	Autonomy	3.56(.39)	3.26(.51)	3.46**
	Environment mastery	3.27(.67)	3.62(.55)	-2.86**
	Personal growth	3.49(.49)	3.19(.61)	2.90**
	Positive relationships	3.58(.57)	3.83(.57)	-2.30*
	Purpose of life	3.20(.36)	3.47(.57)	-3.16**
	Aelf-acceptance	3.38(.52)	3.51(.64)	-1.15
	Total	3.41(.37)	3.48(.45)	.44
Over 5.3million won	Autonomy	3.65(.42)	3.22(.52)	4.22***
	Environment mastery	3.46(.49)	3.69(.48)	-2.11*
	Personal growth	3.71(.48)	3.29(.51)	3.82***
	Positive relationships	3.64(.69)	3.65(.55)	-1.08
	Purpose of life	3.36(.44)	3.76(.44)	-4.07***
	Aelf-acceptance	3.62(.56)	3.83(.64)	-1.62
	Total	3.57(.39)	3.57(.35)	.01

\*  $p < .05$ , \*\*  $p < .01$ , \*\*\*  $p < .001$

### 3.2.4 종교에 따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비교

어머니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하면 Table 7과 같다. 전체 행복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긍정적 대인관계를 제외한 하위변인들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기독교에서는 자율성( $t = 3.06, p < .01$ )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가 더 높았고 환경통제력( $t = -4.04, p < .001$ ), 삶의 목적( $t = -4.12, p < .001$ ), 자아수용( $t = -2.30, p < .05$ )의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천주교에서는 자율성( $t = 2.24, p < .05$ )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고 불교에서는 자율성( $t = 2.74, p < .05$ )과 개인성장( $t = 5.56, p < .001$ )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무교에서는 자율성( $t = 2.74, p < .05$ )과 개인성장( $t = 2.98, p < .01$ )의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가 더 높았고, 삶의 목적( $t = -3.34, p < .01$ ) 변인에서는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7.** Comparison on happiness of preschooler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 mothers by religion

Religion	Happiness sub-factor	Preschooler mothers <i>M(SD)</i>	Elementary mothers <i>M(SD)</i>	t
Christianity	Autonomy	3.60(.48)	3.31(.50)	3.06**
	Environment mastery	3.31(.58)	3.74(.49)	-4.04***
	Personal growth	3.59(.53)	3.45(.62)	1.26
	Positive relationships	3.61(.70)	3.82(.54)	-1.66
	Purpose of life	3.27(.45)	3.62(.42)	-4.12***
	Aelf-acceptance	3.47(.65)	3.75(.57)	-2.30*
	Total	3.48(.45)	3.61(.42)	-1.63
Catholic	Autonomy	3.50(.31)	3.18(.54)	2.24*
	Environment mastery	3.38(.47)	3.52(.46)	-.93
	Personal growth	3.55(.67)	3.23(.62)	1.76
	Positive relationships	3.66(.78)	3.68(.44)	-.06
	Purpose of life	3.27(.31)	3.47(.30)	-1.93
	Aelf-acceptance	3.33(.56)	3.61(.43)	-1.76
	Total	3.45(.43)	3.45(.32)	-.04
Buddhism	Autonomy	3.67(.38)	3.20(.46)	2.74*
	Environment mastery	3.30(.56)	3.30(.43)	-.05
	Personal growth	3.80(.38)	2.84(.47)	5.56***
	Positive relationships	3.36(.59)	3.57(.48)	-1.01
	Purpose of life	3.14(.42)	3.30(.41)	-.93
	Aelf-acceptance	3.58(.61)	3.48(.67)	.39
	Total	3.47(.33)	3.28(.29)	1.55
Have no religion	Autonomy	3.55(.42)	3.23(.44)	4.60***
	Environment mastery	3.38(.67)	3.48(.52)	-1.05
	Personal growth	3.51(.46)	3.28(.52)	2.98**
	Positive relationships	3.61(.59)	3.74(.57)	-1.41
	Purpose of life	3.23(.39)	3.50(.57)	-3.34**
	Aelf-acceptance	3.47(.55)	3.57(.61)	-1.11
	Total	3.46(.39)	3.24(.36)	-1.13

\*  $p < .05$ , \*\*  $p < .01$ , \*\*\*  $p < .001$

## 4. 논의 및 결론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수입, 종교 변인에서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연구문제별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신영과 류철선의 연구[19]

에서 제시했듯이 어머니들은 가족과 친구,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 어머니들이 자녀양육 관련 정보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대인관계를 통한 정신적 조연과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정계숙과 최은실의 연구[10]를 지지한다. 또한 초등 어머니들은 자녀가 친구들과 잘 지내도록 또래 학부모와의 친분을 통해 아이끼리 친구 맺어주기, 학부모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여 비슷한 성향의 친구 찾아주기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며 더불어 학업관련 정보도 공유한다는 김창복과 이신영의 연구[6]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양상은 유아와 초등 어머니들이 긍정적 대인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를 잘 나타내는 것이며, 한국인들의 주된 행복경험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정이나 유대감과 같은 관계적 정서 경험이 행복과 불행의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제시한 Gu와 Kim의 연구[20]와 여성들은 대인관계에서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시한 Ryff와 Keyes의 연구[21]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둔 반면, 삶의 목적은 낮게 인식하였고 초등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지만 자율성은 낮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는 대부분의 시간을 가사와 자녀를 돌보는 일로 보내게 되므로 개인 여가활동이나 자기계발이 행복이라고 인식한다는 Brooks의 연구[9]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어머니는 육아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유를 느끼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기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초등 어머니는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조절이나 성취와 같은 행복감의 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한 Kim, Park과 Kim의 연구[22]와 자녀의 수업준비물 챙기기, 숙제 도와주기, 귀가 후 다닐 학원 정해주기 등 부모역할 증대로 개인의 사생활이 없이 하루 전반을 자녀를 위해 투자한다고 보고한 윤미란의 연구[11]에 제시되었듯이 어머니 자신의 삶보다는 자녀교육을 위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해야하며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여야하므로 환경통제력과 자아수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초등 어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녀가 힘들어도 자신의 일을 참고 견디며 기쁘게 할 수 있

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특이하게 자아수용에서만 35-40세 어머니가 40세 이상의 어머니보다 의의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행복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의 내적 속성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는 Waston과 Walker의 연구[23]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기수용이 행복의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본다. 또한 행복에 대한 연령의 부정적 관계로 30대가 가장 높고 40대 이후는 계속 떨어졌다고 제시한 오노 유미코의 연구[24]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연령이 35-40세에서는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용이, 40세 이상에서는 삶의 목적이 유아의 어머니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주관적 행복감에 관한 Moon 외 연구[13]에서 35-40세 어머니들이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듯이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현재의 자신을 수용, 조절하며,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며,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학업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아동기 자녀를 교육하며 자기조절이나 성취와 같은 행복감의 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한 Kim, Park과 Kim의 연구[22]와도 맥을 같이한다. 한편, 40-50대 어머니들은 종교와 같이 인생을 좀 더 통합적으로 판단하고 되돌아보게 되는 변인을 더 중요시하여 행복하기 위해 더 필요한 조건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한 정계숙과 최은실[10]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40세 이상 어머니는 삶의 분명한 목적에 강조점을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생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연령뿐 아니라 어머니의 연령별로도 부모행복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달라져야함을 시사한다고 본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개인성장과 긍정적 대인관계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은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자아수

용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인 초기 여성의 행복의 핵심은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라고 보고한 Ryu & Rie의 연구[25]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인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Kim 외[12]의 연구와 유아, 아동,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정계숙 외[14]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요인들을 골고루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등 행복에 대한 높은 가치와 기대감을 갖는다는 결과들에 의해 지지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외적 요소인 학력과 행복감의 관계는 매우 미약하거나 [20]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10]와는 불일치되므로 추후 학력과 행복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정 수입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하위 변인 중 개인성장, 삶의 목적 변인에서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개인성장의 변인에서 53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0-530만원의 순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고, 530만원 이상과 350-530만원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어머니의 행복 중 개인성장은 수입이 높음에 따라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수입의 액수와 같은 객관적 요소 자체보다는 530만원 이상, 350만원 이하, 350-530만원의 순으로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볼 때 수입에 대한 만족도 즉, 주관적 판단이 행복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고한 오노 유미코[24]의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평균보다 가구소득이 많다고 생각할수록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종교에 따라 유아 어머니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유아 어머니의 행복감은 모든 하위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등 저학년 어머니의 행복감은 기독교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노 유미코[24]가 지적하듯이 한국은 종교의 유무와 행복감이 관련이 있으며, 기독교인은 무종교, 불교보다 행복감이 높다는 결과와도 일치된다. 또한 기독교는 항상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라는 교리를 강조하므로 감사가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오윤선의 연구[26]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Kim 외[12]은 종교변인은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부분의 행복감 변인들에서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며 종교와 연령 간에 상관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유아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행복감의 변인 중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유아의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삶의 목적은 낮게 인식하는 반면, 초등 저학년 어머니는 자아수용과 환경통제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자율성은 낮게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 및 교육이 어머니의 행복감에 주는 영향력과 유·초 연계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령, 학력, 소득, 종교와 같은 객관적 변인은 유아와 초등 어머니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만 그 상황을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인식함에 따라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연령, 학력, 소득, 종교 등에 제한되지 않고 어머니 스스로가 행복의 의미를 느끼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행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부모교육과 정책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기와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비교, 분석한 국내 처음의 연구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의 행복감 차이를 연령, 학력, 소득, 종교와 같은 객관적 지표로만 분석한 기초연구이므로 본 연구에 기초하여 자녀양육가치관 및 목표, 어머니 역할의 긍정적 인식과 만족감 등의 개인·심리내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는 연구와 부부, 교사, 자녀,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특성에 따라 비교해보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대상자체가 특정지역의 집단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일반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 References

- [1] S. Biddulph, *The Secret of happy children.1*, HaperCollins Publisher, Australia, 1984.
- [2] J. L. Lee, N. H. Kim, "Relations among mothers'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1, no. 1,



- pp. 19-32, 2014.
- [3] K. S. Chung, M. S. Yoo, S. H. Park, & E. S. Choi,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cross the Life-Cycles of Their Children",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3, no. 4, pp. 69-82, 2012. DOI: <https://doi.org/10.5723/KJCS.2012.33.4.69>
- [4] S. H. Kim, A Development of the Measures of the Flourish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2016.
- [5] C. B. Kim, S. Y. Lee, "Mothers' Stories on Their Children's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Studies*, vol. 12, no. 3, pp. 319-350, 2013.
- [6] D. H. Jung, A. S. Chi,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Child-Teacher Relationships, Multiple Intelligences,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6, no. 3, pp. 201-222, 2006.
- [7] G. J. Jo, "Kindergarten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Elementary School",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5, no. 4, pp. 81-103, 2015. DOI: <http://dx.doi.org/G704-000049.2005.25.4.009>
- [8] KICE, Teaching and Learning Center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mily life cycle and marital satisfaction, <http://classroom.re.kr>. Printing on August 3, 2014.
- [9] Brooks, Parenting(3rd ed.),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 2000.
- [10] K. S. Chung, E. S. Choi, "The effect of mothers'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5, pp. 143-163, 2012.
- [11] M. R. Yoon, Understanding about Experiences of 1st-school Year Child and Parents,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master thesis, 2011.
- [12] M. S. Kim, H. W. Kim, Y. S. Han, J. Y. Lim, "Explorations on the happy life of Koreans on the bases their social structur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vol. 22, no. 2, pp. 1-33, 2003.
- [13] S. K. Moon, M. Y. Lee, & S. H. Park,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lling of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4, no. 4, pp. 137-153, 2009.
- [14] K. S. Chung, S. H. Park, M. S. Yoo, E. S. Choi, "The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A Child's Age, the Numbers of Children,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 pp. 105-123, 2013. DOI: <https://doi.org/10.5723/KJCS.2013.34.4.105>
- [15] S. H. Kim, H. I. Hwang, A, "Study on Perceptions b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bout Flouris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9, no. 3, pp. 219, 2015. DOI: <http://dx.doi.org/G704-000814.2015.19.3.002>
- [16]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1984.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17] C. Proctor, A. P. Linley, J. Maltby, "Youth life satisfaction measures : a review",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 4, no. 2, pp. 128-144, 2009.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802650816>
- [18] R. A. Abbott, G. B. Ploubidis, F. A. Huppert, D. Kuh, M. E. Wadsworth, & T. J. Croudace, "Psychometric evaluation and predictive validity of Ryff's psychological well-being items in a UK birth cohort sample of women",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 4, no. 76, pp. 1-16, 2006. DOI: <https://dx.doi.org/10.1186%2F1477-7525-4-76>
- [19] S. Y. Lee, C. S. Ryu, "A Study on the happiness of the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Studies*, vol. 15, no. 3, pp. 303-321, 2013. DOI: <http://dx.doi.org/10.21183/kjcm.2016.09.15.3.303>
- [20] J. S. Gu, U. C. Kim, "Integrativ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feature, life experience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0, no. 4, pp. 1-18, 2006.
- [21] C. D. Ryff,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pp. 719 - 727, 1995.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69.4.719>
- [22] U. C. Kim, Y. S. Park, K. J. Kim, "The future aspiration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 with specific focus on goals and the important factors in achieving the goal", *Korean Journal of Youth Research*, vol. 18, no. 5, pp. 29-60, 2011.
- [23] D. Waston, L. M. Walker, "The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trait measures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567-577,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3.567>
- [24] O. Yumiko, A Comparative Study on Subjective Happiness between Korea and Japan,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te thesis, 2015.
- [25] K. Ryu, J. I. Rie, "The factors of happy lif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4, no. 2, pp. 89-104, 2010. DOI: <http://dx.doi.org/G704-000424.2010.24.2.002>
- [26] Y. S. Oh, "The Effect of Gratitude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Korea Journal of Gospel and Counsel*, 18, pp. 237-263, 2012. DOI: <https://doi.org/10.17841/jocag.2012.18..237>

**이 신 영(Shin-young Lee)**

[정회원]



- 1987년 2월 : 서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교육학사)
- 1993년 2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문학 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세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숲유치원 교육, 부모교육, 유초연계교육

---

**류 칠 선(Chill-sun Ryu)**

[정회원]



- 1986년 2월 : 청주사범대학교 유아교육과(문학사)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1993년 8월: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문학 박사)
- 1991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교육, 과학교육, 부모교육